



'91년도 제 4 차 이사회 개최

본회는 '91년도 제 4 차 이사회를 오는 12월18일 오후 2시30분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91한국양계박람회 결산심의 △추경예산심의 △자조금제도 시행규칙안 심의가 있게 된다.

이사회가 끝나면 월간양계 창간22주년기념 및 송년 리셉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일시 : 1991.12.18(월) 오후 2 : 30
- 장소 : 축산회관 소회의실

부가세 영세율적용 진정서에 대한 회신 농림수산부 평등권 지나친 해석이라 입장 밝혀

본회를 포함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전동용)가 축산물 생산재(사료·약품·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원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관련 진정에 대한 회신

1. 정부에서는 헌법 제123조의 정신에 따라 농·림어업과 농·어촌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여러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바 이들 시책중에는 쌀 등과 같이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도 있고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대한 재정보조도 있으며, 저리의 영농자금지원과 같은 금융지원도 있고 영세농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을 하는 세제지원도 있으나, 이러한 각종 지원시책은 그때 그때의 국가와 사회가 처한 입장, 국내외적 상황, 국가의 재정지원 능력 및 시책효과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수립시행하고 있음.

○정부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GAT-T/BOP졸업에 따라 '97년까지 단계적인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양돈산업의 경우 양계와 더불어 국제경쟁력이 있는 전업농 육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음.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업자재와 같이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음.

2. 그러나 배합사료의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 등에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감면 효과의 상당 부분이 유통과정에 흡수되어 최종담세자인 축산농가에 생산비절감으로 나타나는데 한계가 있고

○세제형평상으로도 의료보험용의약품, 도시영세민 생활용품, 임대주택 건축자재 등 일반서민 생활안정 등 12개 분야의 감면요구 확산으로 축산부

문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국제경쟁력있는 양축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사시설의 자동화, 단지화, 계열화 등 축산업의 본격적인 구조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이러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서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제감면의 혜택을 양축농가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 보다 그 돈으로 큰 재원을 만들어 근원적인 한국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영세율적용보다 그만한 재원을 재정을 통하여 축산업에 재투자 하도록 한 것임.

○이를 위하여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년 축산부문의 세출예산에 계상지원하여 축산부문의 구조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91.5.31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음.

○결론적으로 축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 보다 동 세입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기능을 통한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92 예산에 2,043 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이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근거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으로 개정하였음('91.11.4).

○국가가 농업이나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데는 재정정책, 세제지원정책, 금융정책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대상자와 국가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경종농업분야의 농기계, 비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했다고 해서 축산사료 및 기자재에도 똑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외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평등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재무부 유통과정에 흡수 효과적다고 밝혀와

1. 정부에서도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등 국내 축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축산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첫째, 축산농가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하는 축산에 필요한 각종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둘째, 농가에서 영위하는 대부분의 축산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셋째, 일정기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넷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통해 축산농가에는 저리로 양축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여러가지 재정금융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또한 금년 정기국회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배합사료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축산업구조개선에 지원토록 하고, 현재 국회에서 '92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중에 있으며 아울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원칙적으로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로써 국내거래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므로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그 효과는 유통과정에서 흡수되어 최종소비자인 축산농가에 직접적이고도 완전하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

○사료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축산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원가를 구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축산물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점과

○우리 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부담 경감이라는 일시적·미시적 대책보다는 차라리 그 재원을 축산단지의 개발·축산

계열화 및 자동화 등 축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이 재원을 그대로 농어촌 구조 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전입하여 축산발전에 환원토록 하게 된 것임.

전국 초생추 감별사 시험 경진대회 최우수상 하경미 원장차지



'91년도 제 2 차 전국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및 고등감별사를 중심으로 한 감별 경진대회가 지난 11월15일 서울병아리 감별학원에서 열렸다.

50여명이 응시한 이번 감종시험에는 박순이(100%), 김병용(99.5%), 방명일(98%), 이형희(97%), 조미경(97%) 등 5명이 합격, 10%의 합격율을 보였다.

이어 열린 감별경진대회에는 전국 고등감별사 10여명이 참가하여 부산감별학원 원장인 하경미씨가 적중율 99%(5분41초)로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김윤국씨와 정영환씨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차지했다.

본회 신입직원 채용

총무부의 결원된 인원을 보충키 위해 지도조사과에 근무하게될 황일수(진주농전 축산과졸)씨를 지난 11월11일부로 채용하였다.



계군혈청검사 사업소 기자재 구입

본회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군혈청검사 사업소의 기자재 시설이 1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간 가축위생연구소의 기자재에 전량 의존하여 왔으나 엘라이자(ELISA system)를 구입 설치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92년도 다이어리제작 배포

본회가 매년 회원용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92년도 다이어리가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중으로 회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다이어리 제작에는 고창양계, 한일농원, 제일화학, 바이엘, 우일산업, 봉림축산, 양지부화장, 창우축산, 성진부화장, 영육농산이 협찬하였다.

검정위원회 개최

11월 검정위원회(위원장:오봉국)가 지난 5월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제32회 육용계 검정과 제24회 산란계 제정성적분석을 하였는데 산란검정계의 산란율저하, 경제성 여부, 질병문제 등이 집중토론 되었다.

철저한 질병예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이 산란계에서 35주~39주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11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 강석부)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하이는 1,050원, 세미는 1,000원 내외로 시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병아리가 500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등 너무 높은 병아리 가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병아리 가격이 너무 비싸면 병아리 구하기가 어려워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입추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따라서 업계 발전을 위해 육계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부화업자와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초산일령지연등으로 제때 종란생산을 못하던 계군들이 최근 정상적인 생산을 하고 있음은 물론 환우계군까지 가담되어 상당수수의 병아리가 생산되고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추대의 고가로 품질이 떨어짐은 물론 계절에 따른 생산비 상승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육계값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육계계열체계 총점검 심포지엄 개최

한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본회 및 축협중앙회가 후원한 “육계산업계열체계 총점검”에 대한 심포지엄이 지난 11월22일 축협 대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계열화사업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한국육계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본회에서 한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공식 기구로 운영하여 계열화사업에 대한 이론정립에 주력하여 왔다.

이번에 개최된 심포지엄은 그간의 활동을 총점검하기 위해 열렸으며 각 부문에서 나와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계열화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하였다.

발표내용 및 발표자는 △육계정책(이인형) △기업주체계열화(천호, 한일, 영육, 하림) △협동조합계열화(축협중앙회) △양계협업·종계(정선부) △계육위생검사(김기석) △부화(강재명) △사육(엄재국) △외식(페리카나) △계육소비홍보(김용화) △통합경영연구(김정주) △계육수출(김인식) △계열체계연구(류철호) △육계협의회활동(황인옥) △계열체계보도(정문성)이다.

편집위원회 개최

11월 편집위원회(위원장 : 임병규)가 지난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밀도 사육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계재키로 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의 개방시 그 영향과 대책의 범위설정문제에 논의가 있었다. 91년도 사료가격전망과 사료가격을 인하 시킬수 있는 요인 부가세, 관세, 대두박, 대맥수입, 국산 옥수수등을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닭고기(신선육)소비홍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으며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공동의 노력으로 경주하도록 잡지 편집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